

[20150501 행복바라미 개막식 총무원장스님 치사]

## 치 사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삼라만상이 만개를 펼치는 5월 화란춘성(花爛春盛)의 시기에 좋은 인연들과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함께하게 되어, 반가움과 격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어느덧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 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더불어 희망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이, 많은 이들의 마음 깊이 감동으로 전해졌기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에너지를 소중하게 품고, 또 하나의 씨앗을 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심게 되는 행복의 씨앗이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실로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결국에는 행복과 나눔의 싹을 틔우고,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현시대는 문명의 편리가 넓어지고 경제적 성장이 높아졌지만 이에 걸맞는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이를 엮어내는 우리의 마음은 아직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기에 현시대는 그만큼 삶이 각박하고 어둠의 그늘도 짙게 드리워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의 뜻 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바라미 나눔문화 캠페인을 통해 많은 이들이 나의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낼 수 있는 용기를 키우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축제로 발돋움하여 보살행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원력과 실천이 시민과 사회의 행복으로 회향하기를 바라며, 행복

바라미 문화대축전 행사를 준비해주신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께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기2559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